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문제와 발전전략 — 비만형과 빈곤형의 연관 —

임현진* · 홍성태**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결론: 비만형과 빈곤형의 연관
II.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문제	
III. 미국과 멕시코의 발전전략	

I. 문제의 제기

환경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분명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고대로부터 있어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환경위기(황태연, 1992)나 생태위기(문순홍, 1992)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에서 분명히 새로운 현상이다. 2차대전 이후 이룩된 사상 유례없는 풍요가 역시 사상 유례없는 환경문제를 수반했다는 것은 진정 역사적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인류의 조기퇴화는 하나의 확실한 사실이고, 불시의 멸망은 하나의 가능성있는 사실’(Caldwell, 1970; 환경교육회편찬위, 1992: 19에서 재인용)이라는 경고는 불행하게도 날이 갈수록 더 타당해지는 것 같다. 물론 이런 평가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¹⁾ 따라서 환경문제와 발전전략의 관계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환경문제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란 인간의 사회활동에 의해 발생한 생태적 교란과 이 생태적 교란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을 뜻한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1) 가령 Lewis(1992)는 근본주의적 환경론에 대해 환경주의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으며, Bailey(1993)는 현 사회에 대한 환경주의적 비판을 ‘생태적 사기’로부터 정도로 대단히 혹독하게 반비판하고 있다.

는 우선 생태적 교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과학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폐기물 오염²⁾ 등과 같이 발생원에 따라 환경문제를 구분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법의 가장 기본적인 예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자연과학만으로는 사회적 활동이 생태적 교란을 유발하는 기제와 역으로 생태적 교란이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충분히 밝힐 수 없다. 자연과학적 설명은 그 자연과학적 기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리고 그 기제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사회문제라는 관점을 지킬 때에만 자연과학적 해명도 그 본래의 실천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염이 사회법칙이 아니라 자연법칙을 따라 운동한다는 점이다.³⁾ 여기서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오염이란 어떤 자연지역이나 대상의 훼손을 뜻할 뿐만 아니라 기류나 해류와 같은 '생태운동 자체의 훼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염은 특정 대상에 일시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유동하며 과급법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확산되고 지속된다. 이런 까닭에 오염문제에서는 사후대처보다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음에 오염은 사회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경과 같은 사회적 경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이나 산업이 오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달리 발생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항상 지역간 및 산업간의 확산성을 염두에 두고 그 발생원을 훨씬 넘어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할 때 우리는 2차대전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포드주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최병우, 1992a, 1992b; 김환석, 1992). 포드주의는 연속흐름의 생산방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과급효과는 사회 전체에 미쳤다. 먼저 종래의 생산방식에 비해

- 2)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인구와 자원고갈과 오염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나,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오염문제이다. 인구증가에 대한 강조는 인구의 질적 차원 즉 사회불평등의 문제를 자못 폄하할 수 있고, 자원고갈에 대한 강조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커다란 논쟁점으로 제기된다. 반면에 오염문제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환경문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환경문제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에 그것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과 관련한 자연의 오염과 그 사회적 영향의 문제를 뜻한다.
- 3) 이 점에서 환경문제는 산업사회에서 배양된 대상적 자연관의 변화 및 이에 입각한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이다. 인간이 비록 만물의 영장일지라도 만물이 있을 때에만 그렇다는 인식, 즉 생태적 인간관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Benton(1989, 1992)과 Grundmann(1991a, 1991b)을 참조.

공업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따라서 각종 물자가 시장에 넘쳐나게 되었다. 실제로 '풍요사회'의 근간에는 포드주의로 대변되는 새로운 생산방식의 확립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물의 증대는 결국 원료소비의 증대로 귀결된다. 필요한 원료들 중에는 물론 1차산업에 속하는 것들도 다수이다. 그러므로 포드주의는 2차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1차산업과 3차산업으로 계속해서 확장된다. 그 결과 포드주의는 기계제 대공업의 혁신에 그치지 않고 사회체제의 전체적인 재구성으로 나아간다.⁴⁾ 재구성되는 새로운 사회의 이미지가 바로 '풍요사회'였으며 미국은 그 구체적인 실체였다.

그러나 이같은 재구성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생태계는 극심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공업의 발전은 생태계의 순환을 파괴한다. 공업생산물은 대부분 자연의 순환고리 외부에 쌓일 뿐 자연적으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거대한 단일 경작지는 생물다양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동시에 농약과 비료에 의존한 공업화된 농업은 토양의 생명력 자체를 고갈시키고 만다. 각종 농공산물의 대량생산은 원료 물자의 대량소비와 동시에 진행되고, 수많은 농공산물의 대량소비는 바로 그 폐기물의 대량생산으로 이어진다. 포드주의의 요체로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이처럼 이중적이다. 포드주의가 이룩한 '풍요'는 바로 이같은 이중적 의미에서의 풍요(물질적 생산의 증대/생태적 부담의 증대)인 것이다. 따라서 포드주의의 전환과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는 단지 생산의 질곡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소가 생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도 마땅히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72년에 발표된 로마클럽의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는 환경의 수용력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한 최초의 국제적 연구성과이다. 이 보고서는 '한계'를 강조함으로써 무한성장의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 무렵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72년의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를 시작으로 매 10년마다 회의를 열기로 하여 1982년에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그리고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에서 마침내 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새 장을 열었다.

이렇듯 많은 회의와 토론과 운동의 20년을 거치면서 하나의 개념이 새로운

4) 포드주의의 이같은 확장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는 그람시(1986: 303-46)를 꼽을 수 있다. 그를 이은 주요 업적으로는 프랑스 조절학파의 연구들(Lipietz, 1991: 75-113)을 들 수 있다.

발전전략을 표상하는 것으로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성장의 한계』가 촉발한 ‘성장논쟁’의 중간결론으로서 ‘성장제일주의’ / ‘무한성장론’과 ‘성장의 한계론’ / ‘제로성장론’의 극단을 넘어서려는 진지한 시도이다(홍성태, 1994: 477-78). 1987년에 발표된 유엔의 세계환경발전위원회의 보고서인『우리 공동의 미래』(일명『브룬트란트보고서』)는 이 개념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했다. 또한 여기에는 가난한 자의 필수적인 욕구의 충족과 환경의 능력에 미치는 한계라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WCED, 1987: 75). 이처럼 새로운 성장론은 사회적 정의의 확산과 자원의존의 감소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성장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포드주의의 모국이자 ‘풍요사회’의 원형인 미국도, 그 원형의 복사본을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 중의 하나인 멕시코도,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발전전략의 원칙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 점에서 두 나라는 환경문제로 표출된 생태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국은 산업화를 통해 심각한 환경문제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⁵⁾ 그렇다면 그 문제들은 어떤 종류의 것들이었으며, 어떤 사회적 조건 하에서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양국이 제시한 새로운 발전전략은 그 문제들을 어떤 정도로 고려하고 있는가? 또한 이같은 변화에서 양국이 맺고 있는 연관은 어떠한 것인가?

Ⅱ.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문제⁶⁾

1. 개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멕시코도 대단히 큰 국가이다.⁷⁾ 따라서 환경문

-
- 5) 좀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환경운동의 성장과 확산, 신기술의 발달과 환경산업의 성장 가능성, 탈냉전과 환경안보론의 대두, 환경문제의 구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축적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세계적 확산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환경문제의 발생에 기초하여 나타난 것들이므로 환경문제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변화의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양국은 산업화나 정치적 민주화의 정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발전수준이 다른 것이다. 또한 이같은 발전수준의 차이는 세계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비만형과 빈곤형의 구분에는 이 두 가지 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 구분을 엄밀한 분석적 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화를 중심으로 그 과잉(미국)과 부족(멕시코)이 빚어내는 환경문제의 현황, 그리고 양자의 연관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의 내용과 정도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환경문제가 주로 인구증가와 산업화/도시화, 즉 서구적 근대화의 종속 변수로서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개발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음의 <표 1>은 이같은 관점에서 양국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멕시코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이듯이 멕시코는 인구성장을과 도시 인구의 비율이 모두 높은 편인 반면에 위생의 기초인 식수의 접근도는 낮은 편이다. 멕시코에서는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시지역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지구가 그러한데, 이 지구는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5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각종 도시문제가 대단히 심각

7) 이처럼 큰 국가들의 경우는 여러가지 자연지리적 및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지역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지역적 분석은' 하지 않고 국가별 총량지표만을 살펴 보며, 지역적 분석의 전제인 지역구분과 관련한 몇가지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을 보자.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1971년 4월에 조직을 정비하면서 10개의 지역국(제1지역 보스턴, 제2지역 뉴욕, 제3지역 필라델피아, 제4지역 애틀랜타, 제5지역 시카고, 제6지역 댈러스, 제7지역 캔스اس시티, 제8지역 덴버, 제9지역 샌프란시스코, 제10지역 시애틀)을 두었다(EPA, 1993: 8-9). 미국의 센서스조사는 4개의 지역(region)과 9개의 지구(dvision)로 나누어 실시된다. 즉 동북부(뉴잉글랜드, 중부 대서양), 남부(남부 대서양, 중동남부, 중서남부), 중서부(중동북부, 중서북부), 서부(산악, 태평양)으로 구분된다(Dzialo, 1993: 38). 미국의 지역 주의에 대한 *Congressional Quarterly*의 연구서(1980)는 문화, 경제, 정치의 특징을 고려하여 미국을 지역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또한 9개(뉴잉글랜드, 남주, 로키산맥 서부, 5대호 주변, 중부 대서양연안, 태평양연안 북서부, 캘리포니아, 대평원지대, 워싱턴 D.C.)이다.

한편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3번째로 큰 국가인 데, 그 면적은 남한의 약 20배에 이르고 32개의 주로 구성된다.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면서 양 쪽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접하고 있고, 록키산맥의 줄기인 시에라 마드레산맥이 국토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서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1,000 m 이상의 산악지대이다. 지리문화적으로는 15개의 지역으로 구분(INEGI, 1995: 6)되지만, 보통 5개의 지역(북부 태평양연안지역, 북부지역, 중부지역, 멕시코만 연안지역, 남태평양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멕시코는 전체적으로 산악지대이지만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와 식생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해안지대는 열대성 기후로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은 반면에 인구의 거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는 중부 고지대는 6-9월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건조한 편이다. 또한 멕시코의 태평양연안을 지나는 해류는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북부지방을 건조하게 만들어 반사막화하는 곳들도 있으나, 대서양연안을 지나는 해류는 고온다습하여 대단히 많은 비를 뿐린다. 이같은 지리적 특성 외에 백인이나 여러 혼혈들과 함께 아직도 16종의 토착민이 있고 50종 이상의 토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인종적 및 문화적 특징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20-32).

〈표 1〉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관련 지표들

항 목	미 국	멕시코	한 국
인구(천만)(1990)	25	8.6	4.3
연평균 인구성장율(1980~90)	0.9	2.0	1.1
도시인구비율(1990)	76	73	72
깨끗한 물의 접근율(인구 비율)(1990)	*	70.0	93.0
삼림의 변화(연간%)(1989)	-0.1	-1.2	-0.1

주: *는 90%를 훨씬 넘는 것으로 평가됨.

출처: Sheram(1993: 10-13).

〈표 2〉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도(1990년)

(단위: $\mu\text{g}/\text{m}^3$)

항목	로스엔젤레스	멕시코시티	서 울
SO ₂	8.46	138	145.6
NO ₂	83.24	108.0	61.6

출처: 미국과 한국은 통계청(1995:794, 796)에서 환산, 멕시코는 INEGI(1995: 80)에서 환산.

한 상태이다(Secretaria, 1994: 223-24). 또한 삼림의 감소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멕시코의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⁸⁾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도에서도 역시 미국에 비해 멕시코가 한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 특히 질산화물의 차이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서 1991년의 자동차 보유대수를 보면, 미국이 188,371,935대, 멕시코가 10,398,710대, 한국이 4,247,816로 나타난다. 서울의 질산 오염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보유차량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만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8) 세계은행은 삼림파괴를 비롯한 제3세계의 환경문제 악화요인으로는 빈곤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우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했다(World Bank, 1992: 29-30). 화전과 개간을 통한 삼림의 파괴는 분명 심각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삼림파괴의 원인이기에 앞서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사회불평등구조의 결과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같은 불평등구조가 우선 개선되지 않은 채 성장우선 정책이 추진된다면, 결국 종래의 불평등구조가 강화됨으로써 환경파괴의 문제도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세계은행의 '성장우선정책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발전론'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삼림파괴의 문제에 대해서는 Durning(1994: 51-82)을 참조.

측정한다면 이 수치는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물론 그간 서울의 자동차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로스엔젤레스의 질산 오염도가 높은 까닭도 역시 자동차때문이라고 하겠는데, 캘리포니아는 자동차의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미국에서도 자동차가 많은 곳이고 로스엔젤레스는 그 중심도시로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광화학스모그의 '원조' 도시이다.

다음에 지구환경문제⁹⁾에 대한 양국의 기여도를 보자(〈표 3〉). 여기서는 특히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고갈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CFCs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산화탄소와 CFCs의 방출은 산업의 발달정도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만큼 멕시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기여도는 압도적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막대한 부는 남북간의 산업적 불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적 불균등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멕시코가 한국보다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까닭은 산업이 더 발달해서가 아니라 배출방지시설 등이 훨씬 더 미비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목할 것은 산림벌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멕시코의 경우만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멕시코의 자연환경이 그만큼 빠르게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산림훼손은 결국 사막화와 같은 생태적 균형의 파괴를 부르고 나아가 식량 및 식수의 부족 등을 통해 빈곤을 강화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면 이어서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문제에 대해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각국의 기여도

	미국	멕시코	한국	세계
CO ₂ 방출 (10 ³ t)	가 1980 1991 나 1985	1,261,778 1,345,969 -60,306	71,001 92,760 55,968	34,312 72,229 -241
CFCs(t) 하론(t)	1990 1990	111,039 34,554	11,117 3,676	16,203 524
				*1,027,748

주: 가)는 화석연료의 사용 및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나)는 산림벌채에서 발생하는 것.

*는 CFCs와 하론을 합한 세계 총량임.

출처: 통계청(1995: 788)

9)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米本昌平(1994)를 참조. 이 책은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논란을 일으킨 과학논문들과 그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변화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2. 환경문제의 현황

1) 미국

오늘날 미국의 환경은 분명히 깨끗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환경은 물질적 풍요를 더욱 만끽하게 되면서 크게 악화되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그 과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채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이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우리라고 보는 것은 또 다른 ‘아메리칸 드림’ 일 뿐이다. 아직 미국은 생태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사회’¹⁰⁾로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문제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그 문제들의 주요한 예들로는 러브커넬사건(1978, PCB), 로스엔젤레스 광화학스모그(1951, 자동차 배기ガ스에서 배출된 질산화물과 강렬한 햇빛이 형성하는 오존), 제임스강 오염(1975, 살충제), 스리마일사건(1979, 핵발전소), 타임즈 비치사건(1982, 다이옥신), 디디티오염(1962, 살충제),¹¹⁾ 필라델피아사건(1976, 냉각수에서 번식하는 레지오넬라균), 미시간 PBB사건(1973, 산불

10) 이에 대해서는 Baudrillard(1970)와 Durning(1992)을 참조. 맑스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있던 중에 쓰여진 전자에 따르면 ‘소비사회 자체가 소비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신화’이며 ‘소비에 관한 유일한 객관적 현실은 소비라고 하는 관념뿐’(300)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중세사회가 신과 악마 위에 균형을 유지하였듯이, 우리들의 사회는 소비와 그 고발 위에서 균형을 취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어느날 갑자기 난폭한 폭발과 붕괴의 과정이 시작되어 1968년 5월과 같이,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이 [소비의] 하얀 미사를 때려부수기를 기다려보자”(305)고 제안한다. 한편 후자는 현대 산업사회의 가치가 되어 버린 소비의 반생태적 면모를 절저히 드러낸 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문명이 자가용과 쇼핑단지, 일회용 경제에 지배된 개발의 오염자국으로 메워질 줄이야 한세기 전 그 누가 예측했겠는가?”라고 물으며, 만족함보다는 적절함을 추구하는 지속성의 문화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165).

전자는 소비로 인한 소외를 강조하되 그 반생태적 성격에는 주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는 소비의 반생태적 성격에 주목하되 중간계층의 생활수준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거대화 논리와 현대의 소비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될 뿐 결코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하여 다룬다는 점에서 두 저작은 중요하다.

11)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유명한 『침묵의 봄』이다. 레이첼 카슨은 이 책에서 DDT를 죽음의 만능약이라고 부르고 살충제란 사실 ‘살생제’일 뿐임을 논증한다. 그 때문에 소란스러워야 할 봄이 겨울처럼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같은 ‘살생제’가 널리 사용된 까닭을 ‘넓은 농지에 한 종류의 작물만을 심게 되는 농업형태’(Carson, 1962: 18-21), 즉 공업화된 포드주의적 농업방식에서 찾는다. 이 책이 미국에서 생태주의를 발흥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그녀가 생물학자로서 빼어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처럼 그 사회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뛰어난 감식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화용 소방제), 알라모골드사건(1969, 메틸수은이 함유된 농약) 등을 들 수 있다(이두호·박석순, 1994: 13-64, 79-84). 이 중에서 러브커넬사건과 로스엔젤레스 광화학스모그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러브커넬은 1892년에 윌리암 러브라는 사업가가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운하를 건설하려 한 데서 시작한다. 이 공사는 자금난으로 1910년에 중단되었는데 그 뒤 1940년대에 후커케미칼이라는 화학회사가 중동부이로 끝난 이 러브 커넬을 매입하여 1942-50년 사이에 유독성 화학물질을 이 곳에 매립한 후 1953년에 이 운하와 그 주변 대지를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에 기증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일부는 주택지로 사용하였다. 그 뒤 1970년대 초부터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시 당국은 조사를 통해 지하수가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뒤 한 학부모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어 마침내 연방정부는 1978년 8월에 이 지역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거주하던 모든 가구들을 소개시켰다. 그리고 이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는 1억 달러 이상을 들였으나 아직까지도 이 지역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폐쇄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1980년 12월에 이를바 「수퍼 펍드법」이 제정되어 이와 같은 유해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160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조성하고 유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및 보상을 시작했다. 이 법의 시효인 1985년 9월 30일까지 환경청이 찾아낸 유해지역의 수는 20,766개소에 달하며 매우 위험한 지역만도 507개소에 이른다.

로스엔젤레스 스모그는 사실 스모그가 아니다. 원래 스모그는 안개와 이산화황이 결합하여 대기가 뿌옇게 변하는 현상을 가리키지만, 로스엔젤레스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ガ스에 함유된 질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강렬한 햇빛과 반응하여 오존이 형성되어 시야가 흐려지는 것이다. 이 오존은 성충권 오존과 달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서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눈이 따가워지는 증세를 일으킨다. 영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격히 대도시로 성장한 로스엔젤레스는 1940년대부터 이 신종 공해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조치가 다각적으로 취해진 결과 1951년에 처음으로 그 발생기제를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자동차 배기ガ스를 규제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친 힘겨운 투쟁이 뒤따라야 했다. 왜냐하면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기간산업으로서 거대 독점자본의 중추였기 때문이다(Commorer, 1971: 69-83; 환경과 공해 연구회, 1991: 134-35). 즉 광화학스모그를 막고 대기권 오존으로 인한 건강상

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장악하고 유수의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 자본과 끈질기게 투쟁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로스엔젤레스 광화학스모그사건은 환경문제가 정치적 세력 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사슬망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좀더 최근에 그 전모가 드러난 환경문제로는 군사시설 및 활동으로 인한 대규모 오염(홍성태, 1995; Davis, 1993)과 이른바 첨단무공해산업으로 선전되는 반도체산업에 의한 심각한 지하수오염(吉田文和, 1990)을 들 수 있다. 먼저 '하이테크 오염'에 대해 살펴보자. 반도체는 제작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세정작업을 행해야 한다. 세정제로는 트리클로로 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유기용제와 아르신, 포스핀, 디보란, 염소, 실란 등의 기체용제가 사용된다. 유기용제들은 모두 간암을 유발하는 물질이고 기체용제들도 맹독성이다. 따라서 반도체는 분명히 청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요구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은 대단히 위험한 '화학공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험한 용제들이 유출되어 지하수로 스며들어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시에서 1982년에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페어차일드사가 지하에 묻어 둔 탱크에서 유기 용제의 폐액이 흘러나와 상수원인 지하수를 오염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뒤 조사가 계속되어 실리콘밸리 전역에서 유기용제가 발견되었으며, 오염원은 65개 이상의 반도체공장을 중심으로 한 151개의 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天笠啓祐, 1990: 75-7). 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단히 위험한 사용제와 유기용제가 지하에 매장된 탱크의 약 80%에서 새어 나왔으며, 약 100종류의 화학물질이 지하수에서 발견되었고, 실리콘밸리에서 매년 약 27톤의 중금속이 하수도를 통해 샌프란시스코만으로 흘러 들어가 주변의 습지와 만이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에서 잡은 물고기는 먹을 수도 없게 되었다(吉田文和, 1990: 17-8).

이어서 탈냉전에 따른 군비감축과 함께 그 실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군사오염의 문제¹²⁾를 보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은 세계 제일의 환경파괴원이기도 하다. 우선 군사훈련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영구히 폐쇄된다. 또한 각종 중금속과 유독물질들이 군사훈련과 무기제작 과정에서, 그리고 군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산업활동에서 발견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12)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과 자료들 외에 이 주제와 관련된 주요 연구서들로는 Shulman(1992), D' Antonio(1993), Kakonen(1994) 등이 있다.

것으로 밝혀진 군대관련 지역의 수는, 1986년에는 529개 군사기지의 3,526개 부지였으나 1989년에는 1,579개 기지의 14,401개 부지로 늘어났다.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들은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의 적용을 면제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Renner, 1991: 231-41).

이와 같은 오염물질의 정화작업을 위해 미국방부는 환경청(EPA)이 작성한 우선순위목록(NPL)에 오른 시설들과 폐쇄될 시설들에 최우선수위를 부여하고 있다. 1994년 현재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는 254개의 시설들에 있는 7,448개의 부지를 중에서 단지 205개 부지의 오염처리활동만이 완료되었으며, 29개의 부지에 대해서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는 시설들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182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나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Heivilin, 1994: 1-3). 미군과 군수산업은 이처럼 여러가지의 환경문제를 야기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다. 핵실험장은 물론이고 핵무기 생산시설에 의한 환경 오염도 대단히 심각하다(『한겨레신문』, 1990/8/23; Renner, 1991: 252). 미·소군축협상의 진전으로 미국은 1990년 현재 약 21,000개에 달하던 핵탄두와 핵폭탄을 2003년까지 약 3,500개로 줄일 계획이다(Rezendes, 1993: 2). 이같은 폐기 및 생산감축과 함께 기존의 핵관련 시설을 민수용으로 사용하려는 계획도 진행중이다. 여기에 요구되는 정화비용은 막대하다. 미국의 연방회계검사국(GAO)은 1988년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에너지부와 관련된 시설의 정화비용만으로도 25년 내지 35년에 걸쳐 약 1,15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藤岡惇, 1992: 30).

2) 멕시코

미국의 환경문제가 산업화와 그에 의한 풍요의 결과로 빚어지고 있다면, 현재 멕시코의 환경문제는 빈곤과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은 분명히 멕시코의 환경문제를 관철하는 핵심요인이다.

마갈리 교수(멕시코 국립자치대학, 생태인류학)의 설명¹³⁾에 따르면, “멕시코의 환경문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¹⁴⁾ 예를 들자면 북부 산업지대와 중부지역과 남부의 우림지대는 다르다.” 먼저 북부 산업지대의 경우는 이미 1960년대부터 개발되어 온 곳인데 최근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3) 1995년 8월 9일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의 인류학연구소에서 면접.

14) 멕시코처럼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격차가 큰 국가의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을 주요한 분석범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연지리적 차이를 고려하여 일단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고, 멕시코 환경문제의 응축지인 멕시코 시티의 오염현황을 제시하도록 한다.

의 체결과 함께 더욱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북부 산업지대의 환경문제는 현재 6개 지역으로 구분된 ‘국경지대(The Border Area)’의 환경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¹⁵⁾ 이 지대에는 콜로라도강, 티후아나강, 리오 그란데강과 같은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큰 강들이 있는데, 이 강들로 흘러 들어가는 하수도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이 강이나 지하수들이 오염될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은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의 발병으로 이미 크게 고조되었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 유독물질과 폐기물, 농약의 영향 등의 문제들이 국경지대의 주요한 환경문제들로 다루어지고 있다(EPA, 1992: III 1-III 25).¹⁶⁾

한편 마갈리 교수에 따르면 우림파괴의 문제는 식량부족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글을 개간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빈곤과 환경악화의 악순환은 멕시코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 무리한 개간사업을 벌인 결과 현재 농경지의 최소한 70%가 토양침식을 겪고 있으며 관개지의 1/10이 고도로 염화된 상태이다. 또한 매년 약 1,000평방 마일의 토지가 사막화하고 있으며, 현재 56.000평방 마일의 삼림만이 남아 있는데 대규모 목장과 영세농들에 의해 매년 1/20씩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삼림파괴는 강을 범람시키고 용수부족 사태를 가져와 농업에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빈곤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같은 환경문제는 도시로까지 확산된다. 즉 영세농은 생존을 위해 한계지의 경작에 매달리는 한편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도시문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Myers, 1993: 139-41).¹⁷⁾

-
- 15) The Baja California/California Region, The Sonora Plains/Colorado River Basin Region(the Pacific Lowlands), The Sierra Madre Occidental/Continental Divide Region, The Northern Plateau/Great Plains Region, The Sierra Madre Oriental Mountain Region, The Gulf of Mexico Coastal Plain/Gulf Coast Lowland Region의 6개 지역이며,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은 EPA(1992: II 1-II 9)를 참조.
 - 16) 이 지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NAFTA의 체결에 따라 산업화가 촉진됨으로써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와 미국 측의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참고로 1986년에 국경지대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된 이래, 1992년에는 통합환경계획이 시작되었고, 1993년에는 국경지대환경협조위원회(BECC)와 북미개발은행(NADBANK)협정이 조인되었다. 또한 NAFTA의 체결에 따라 1993년에 북미환경협조위원회(NACEC)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 3국간의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다루게 되었다(EPA, 1995: NACEC, 1995).
 - 17) 멕시코시티의 차도에서는 극히 영세한 행상들과 ‘거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멕시코시티에 갔을 때는 마침 우기라 매일 오후 3-4시 경이면 어김없이 늘 비가 내렸다. 그리고 비를 피해 건물의 처마 밑에 모여 앉아 ‘따꼬’로 허기를

또한 「멕시코시티의 친구들(Amigos de la Ciudad de Mexico)」은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¹⁸⁾ 즉 “멕시코시티에서는 대기오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자동차가 가장 중요하다.¹⁹⁾ 물은 정수할 수 있으나 대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멕시코 전체로는 물 부족과 삼림벌채가 가장 큰 문제이다.” 물 부족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멕시코시티의 경우는 지하수 고갈로 지반이 낮아지면서 건물이 내려앉을 정도의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1994/4/22; 『한겨레신문』, 1995/7/10). 고산대지라는 지리적 특성과 오랜 가뭄이 산업화로 인한 물 오염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이같은 지하수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표 4>).

마갈리 교수의 주장대로 멕시코의 환경문제는 “결국 윤리적 및 정치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외적 불평등구조가 멕시코의 환경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시티는 대기오염의 세계적 사례이자 멕시코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서 중요할뿐만 아니라, 이같은 환경문제의 사회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1970년에는 멕시코시티에 900만명의 사람들이 살았으나, 현재는 그 2배도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2000년 경에는 약 2,5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식용수와 하수체계는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으며 시민의 혈중납농도는 동경의 4배이고 대기는 하루에 2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정도

<표 4>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지구의 식용수 부족

지 역	인구(백만명)	수요(m ³ /seg)	공급(m ³ /seg)	부족(m ³ /seg)
멕시코시티	10.5	38.95	36.80	2.15
다른 도시들	8.5	27.60	19.50	8.10

출처: INEGI(1995: 103)

채우는 ‘거지’들도 늘 볼 수 있었다. 어느날 밤 차에서 본 5살 정도밖에 안된 어린이의 서투른 재주넘기도 결국 이 ‘따꼬’ 값을 벌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18) 1995년 8월 9일 「멕시코시티의 친구들」 사무실에서 면접.

19) 멕시코시티는 무연가솔린의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이 거대한 고원분지 도시의 시내에서는 자동차 배연냄새는 아예 잊고 지내야 할 뿐더러 혈중납농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직까지는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으로는 Greenpeace Mexico의 Propuesta Alternativa de Transporte Publico y Vialidad para la Ciudad de Mexico(발행년도 미상)를 참조.

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다(Myers, 1993: 141). 사실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은 이미 세계 최악으로 정평이 나있다. 500만대의 자동차를 비롯하여 정유공장과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35,000여개의 각종 공장들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이 오염원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말미암아 멕시코시티의 대기에는 중금속이 함유된 먼지가 하루에 약 40톤이나 떠다니고 있는 실정이다(이두호·박석순, 1994: 65).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는 1996년 1월 22일부터 발동된 대기오염비상령이다. 멕시코시티는 비상령의 발동과 함께 공장조업 규제, 가솔린 판매 및 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조치들을 취했으나 몇일이 지나도록 대기오염 수준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천명의 시민들이 호흡곤란과 안질, 두통, 구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시당국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둘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각급 학교는 각종 옥외활동을 전면중단했다(『조선일보』, 1996/1/26).

III. 미국과 멕시코의 발전전략

1. 미국: 클리터노믹스

냉전체제에서 동서 양 진영 간의 대립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되어 2차대전을 계기로 고착된 체제간 대립이 해체됨에 따라 군사안보의 시대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변화의 방향은 경제경쟁의 격화와 환경문제의 전면적인 부상이라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²⁰⁾

그 동안 미국 경제는 재정적자, 무역적자, 생산성 하락, 투자부진, 시장적응력의 부족, 정부정책과 제도의 경직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침체를 면치 못했다. 최강의 군사국가이자 최대의 소비국가인 미국의 이면에는 환경문제와 경제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고용증대정책, 교육제도개선정책, 재정적자축소계획, 신통신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통해 탈냉전기의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동시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유장희, 1993: 32-45). 현재 ‘클리터노

20) 여기서 종래 군사적 대립을 중심으로 정의되었던 안보개념이 변화하여 이른바 ‘환경안보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도 이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으나(WCED, 1987: 352-371), 본격적인 논의는 탈냉전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Romm(1993)과 Kakonen(1994)을 참조.

'믹스'는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1994년의 미국 경제를 보면 물가는 대단히 안정된 동시에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4%의 실질성장율이 달성되었으며, 기업의 설비가동율은 1994년 12월 현재 85.4%로서 1979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김기환, 1995: 155).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회생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세기의 풍요와 대립이 놓은 환경문제의 해결이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기서 1992년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발표된 고어 부통령의 구상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마셜플랜의 추진을 주창하는 고어의 구상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해 지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고어는 이같은 "지구환경판 마셜플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선진국들이 자진해서 자기 국내를 변혁시키는 짐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Gore, 1992: 305)"고 본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견이고 근시안적인 것이다. 고어는 "지나가는 배의 불빛에 의존하지 말고, 별을 보고 배의 키를 잡을 때가 온 것 같다"는 브래들리 장군의 말을 인용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지구환경의 마셜플랜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309).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이 구상은 5가지 실행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목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고어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구적 정보화 불을 몰고 온 당사자답게²¹⁾ 고어의 구상은 신기술의 폭넓은 활용과 그를 통한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어 구상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로서의 환경정책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사실 미 정부는 '환경산업'의 성장에 이미 단단히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3,800억 달러 수준이던 환경산업과 관련된 세계시장이 2000년 경에 5,9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이 분야에서 미국의 수출은 1989년에 비해 1991년에는 75%가 증가하여 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시장점유율의 경우 미국이 35%로 서유럽의 25%와 일본의 5%에 비

21) 고어의 진면목은 환경문제가 아닌 정보화에 있다고 보는 평론가도 있을 정도이다. 즉 그는 정보해제모니를 장악함으로써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를 굳히려는 정보 패권론자이자 정보 혁명가라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문제와 정보화에 관한 한 그는 대단히 진보적이지만 이것은 미국의 틀을 결코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남부의 매파' 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용호자'로 규정했다고 하며 MX미사일과 B-1폭격기의 생산계획에 찬성하고 걸프전에서 무력사용을 앞서서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건, 1995: 18, 25).

〈표 5〉 지구마셜플랜의 목표들

목 표	미국의 책임
세계인구의 안정화	미국의 비용분담, 산아제한책의 활용, 유아사망율의 저하
친환경적 기술개발/이전	SEI(지구환경구상)의 추진
경제적 규칙의 재검토	환경의 가치를 반영한 경제정책
새로운 국제협정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정에 적극적으로 참가
지구환경에 관한 교육	지구관측계획과 디지털지구프로그램의 추진

출처: Gore(309-59)

해 단연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동아일보』, 1994/4/1).²²⁾

고어의 구상이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기 이전에 제시된 기본안이라면 1996회계년도 예산안은 환경개선을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GPO, 1995: 81-90)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 예산안에서는 우선 4가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건전한 경제와 건전한 환경은 공존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를 방관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삼아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만 한다. 셋째, 정부는 지역민들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고 협력해야만 한다. 넷째, 국제 환경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해야만 한다. 예산은 5개의 분야로 나누어 집행되는데 1996회계년도의 총액은 362억 300만 달러로서 1995회계년도에 비해 11억 4,100만 달러, 비율로는 3%가 증액되었다. 이렇듯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편성의 면에서 보자면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군비확장 노선을 추구하고 환경문제를 경제적 편익분석의 수준으로만 해결하고자 했던 레이건과 그의 뒤를 이은 '작은 레이건' 부시에 대한 정책적 반발을 배경으로 클린턴이 집권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변화는 탈냉전과 함께 미국이 군사화의 길을 걸었던 1980년대와 실질적으로 단절하는 데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환경보호의 1990년대를 창조하려는 의지의 실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악화에 따라 환경규제가 새로운 교역조건으로 부상하고 이에 따라 환경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것이 이같은 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환경의 요구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 종래의 생산 및 소비양식에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경제적 요구가 환경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이윤의 원천으로 삼게 된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변화는

22) 환경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기업들의 노력도 이미 대단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는 Smart ed.(1992)를 참조.

'경제적 합리성'의 국지적 변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클린턴은 친환경적이라고 여겼으나 (레이건의 반환경주의와) 똑같은 결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23)고 보고, '1992년 대선에서는 환경주의자들이 클린턴을 지원했으나 정책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1996년에는 그를 지원하지 않을 것' 24)이라는 환경운동가들의 거센 반발은 이런 점에서 비롯된다.

2) 멕시코: 신자유주의

인도를 찾아 나선 콜롬부스가 인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지의 땅에 첫발을 디딘 이래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의 식민지로서 오랜 기간에 걸친 혹독한 착취와 수탈의 시대를 견뎌야 했다(Galeano, 1974). 25) 이 대륙에 일대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쿠바혁명을 통해서였다. 쿠바혁명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보수친미정권이 선거나 군사쿠데타에 의해 혁신정권으로 대치되거나 좌우세력의 틈에서 동요하던 정권이 토지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에 몰두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미국은 이른바 '진보를 위한 동맹'을 선언하여 정치체계의 민주화, 토지개혁, 산업화를 추구하며 미국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동맹이 내적 모순으로 붕괴하면서 미국은 군사지배의 강화, 혁신정권의 탄도, 보수적 군사정권의 지지를 통해 미국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노선으로 전환하게 된다(임현진, 1993: 52-3).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잘 알다시피 미국과 멕시코는 접경국이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말하자면 멕시코는 미국이라는 몸통을 떠받치고 있는 넓적다리와 같은 형국이다. 이 지정학적 비유는 분명히 비유 이상의 현실을 함축한다.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나 멀고 미국은 너무나 가깝다' 26)는 말이 널리 알려진 까닭도 바로 이같은 현실에 있다. 물론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1910년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제도혁명당은 그동안 좌우노선을 오가며 다양한 정치·경제적 실험을 해왔으며 나름대로 체제변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3) 1995년 8월 21일, 워싱턴에서 미국 그린피스와 면접.

24) 1995년 8월 21일, 시에라클럽 워싱턴 지부에서의 면접.

25) 유럽의 라틴 아메리카 침탈은 종칼로 시작되어 생물학적으로 완성되었다. 유럽인은 아메리카에 없던 가축이나 농작물, 그리고 치명적인 병균까지도 이 대륙에 가지고 왔다. 제국주의는 군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차원에서도 막강한 지배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Crosby(1988)를 참조.

26) 1995년 8월 22일 워싱턴에서 National Wildlife Fund의 국제프로그램 책임자인 Stewart Hudson과의 면접. 허드슨은 원래 멕시코 시인의 '한탄'인 이 명구를 멕시코의 속담으로 소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멕시코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순환의 과정에서 혁명이념은 퇴색해 버리고 결국 정치안정과 구조개혁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임현진, 1993: 125).

살리나스의 집권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의 정책노선은 일단 구조개혁의 노선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자유주의는 현재 라틴 아메리카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구조변혁의 조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장의 절대화와 국가의 최소한 축소를 축으로 하는 발전전략이다(이성형, 1993: 133-34). 멕시코는 1988년에 살리나스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이같은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로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가령 1992년의 물가상승률은 1975년 이래 최저치인 11.9%를 기록하였고, 또한 외채의 경우를 보면 1986년에는 GDP의 78%를 차지했으나 1992년에는 30.1%로 감소하였다(김영돈, 1993: 11).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은 민중혁명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멕시코의 지배연합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단임제 대통령의 이데올로기적 진자운동(ideological pendulum)을 포기한 것으로서, 국가자본주의에 입각한 수입대체산업화 대신에 수출증진과 경제자유화의 노선을 선택한 것이며, ‘정치적 민주화를 통한 안정’ 대신에 ‘경제적 효율성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백종국, 1994: 55).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1994년 12월 20일의 폐소화 평가절하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곧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수입급증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직접적인 원인인 이 금융위기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1994년 1월 1일)된 지 채 1년도 안되어 발생한 것이었다(김원호, 1995: 61). 그리고 여기에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에 의한 치아파스에서의 원주민 무장봉기로 대표되는 멕시코의 정정불안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들은 살리나스 정부의 종언과 임시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에 의한 불평등문제의 악화를 혁파하려는 것이었다(이남섭, 1995: 259-63).

이렇듯 멕시코의 신자유주의는 많은 문제를 드러낸 채 1995년 12월에 세디요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러면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한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에서 환경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그 큰 맥락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에 있다. 멕시코 사회발전위원회는 우선 지속가능성을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기술의 지속가능성, 소비의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3가지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작동원리로 제시하고 있다(Secretaria, 1994: 18). 첫째, 재생력을 가진 자원들을 개발할 때까지 재활용자원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한다. 둘째, 생태계의 동화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생산 및 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을 허용한다. 셋째, 세대간의 관점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자원과 대체자

원의 이용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4가지 차원, 즉 경제적, 인간적, 환경적, 기술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다차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발전위원회, 국립생태연구원, 연방환경보호사무국 등이 조직되어 있다(INEGI, 213-17: 243-46).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나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사업계획의 면에서 보자면 멕시코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명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외관과 실행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 문제에 대해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의 「대학생활환경계획(PUMA)」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리나 레알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어려운 것은 권력집단과 관료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²⁷⁾ 실제로 멕시코는 아직까지도 자동차배기ガ스의 매연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촉매변화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유연휘발유를 사용한다(이두호·박석순, 1994).²⁸⁾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배기ガ스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즉 멕시코는 친환경적인 발전의 이상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현실은 아직 환경을 소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미칠 영향은 좀더 시간이 지나야 분명해질 문제이지만, 미국의 기준을 따라 멕시코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Yandle, 1993: 8-10)보다는, 시민운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경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²⁹⁾이 더 현실감있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IV. 결론: 비만형과 빈곤형의 연관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문제와 발전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양국의 사회적 격차는 대단히 크지만 환경문제가 근대화의 산물이며 사회불평등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

27) 1995년 8월 11일, 멕시코국립자치대학의 PUMA사무실에서 면접.

28) 멕시코시티에서는 폭스바겐 택시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초록색 차는 무연가솔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조금 더 비싸다. 이 차는 멕시코시티의 대기 오염을 고려하여 무연가솔린을 사용하는 ‘생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29) 1995년 8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그린피스와 면접.

〈표 6〉 미국과 멕시코의 사회적 격차

항 목	미 국	멕시코	한 국
1인당 GNP(1990)	21,790	2,490	5,400
연평균 1인당 GNP 성장율(1965-90)	1.7	2.8	7.1
차량 1대당 이용자 수	2	15	38
1인당 에너지 사용량(석유환산kg)(1990)	7,822	1,300	1,898

출처: Sheram(1993: 10-13)

〈표 7〉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문제와 발전전략

	미국: 비만형	멕시코: 빈곤형
환경문제의 원인	풍요	빈곤
발전전략	지속가능한 발전 사전예방 환경산업	지속가능한 발전 사후대응 보상논리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는 환경문제와 발전전략의 표면적 내용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계 제일의 물질적 풍요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비만의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통계적 평균으로 보았을 때 미국인은 매일 기본 영양칼로리의 138%를 섭취하며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76세가 되도록 다이어트를 걱정하며 살아간다(『조선일보』, 1995/12/30). 반면에 멕시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빈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늘날 멕시코의 식량생산은 1970년 수준을 훨씬 밀들고 있으며, 적어도 5명 중의 2명이 건강과 성장과 생산적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현재 곡물 소비량의 1/4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취약한 멕시코 경제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Myers, 1993: 140). 한쪽은 환경을 혹사한 결과 비만에 이르렀고, 다른 한쪽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을 혹사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의 풍요와 빈곤의 대립은 어느 면에서나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립이 세계체제 상의 불평등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양자는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정의의 문제를 전적으로 폐기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 원인인 근대화에 대한 성찰과 발전전략의 발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문제이다. 환경을 대상시하고 환경문제를 도외시하

는 단순한 경제회생 또는 성장정책은 결코 새 시대의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더 나은 상태의 건설이라는 가치평가를 전제로 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생태적 합리성은 경제활동이 더욱 더 생태계의 순환운동에 적응할 것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더욱 더 공평하게 분배될 것을 요구한다. 이제 경제적 합리성은 생태적 합리성의 원리에 순응해야 한다. 물론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아직 같은 수준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비만과 빈곤의 비대칭적 연관때문에 멕시코는 끊임없이 미국을 꿈꾼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 의심받고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멕시코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훌륭히 살아 있다' (Durning, 1992: 14). 따라서 빈곤형에 기반하여 비만형이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비만형의 체질개선이 선행/동반되지 않으면 빈곤형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지구적 차원의 생태 및 사회의 개선을 위해 이제는 바로 미국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물질적 소비를 줄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김기환

- 1995 "미국의 경제," 권태환·하영선 책임편집,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감』,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김영돈

- 1993 "멕시코 경제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원호

- 1995 "미주 경제통합," 권태환·하영선 책임편집(1995),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감』,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김환석

- 1992 "환경위기: 자본주의의 위기인가, 포드주의의 위기인가," 한국산업사회 연구회, 『경제와 사회』 제16호/겨울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3 『멕시코 편람』

문순홍

- 1992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박태건

- 1995 『엘 고어 정보초고속도로』, 길벗

백종국

- 1994 "멕시코: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 『계간 사상』 가을호

유장희

- 1993 "미국경제의 현황과 장단기 전망," 『계간 사상』 봄호

이남섭

- 1995 "멕시코," 권태환·하영선 책임편집(1995), 『아시아·태평양지역 연

- 감』,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이두호 · 박석순
 1994 『지구촌 환경재난』, 뜨님
 이성형
 1993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시장이 생산하는 자유’,” 『사회비평』 제9호
 임현진
 1993 『제3세계 연구: 종속, 발전 및 민주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통계청
 1995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최병두
 1992a “자본주의 사회와 환경문제,”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 『한국공간환경의 재인식』, 한울
 1992b “자본주의의 위기이며 동시에 포드주의 위기인 환경위기 – 김환석 교수의 비평에 대한 답론,” 한국산업사회연구회, 『경제와 사회』 제16호/겨울호
 홍성태
 1994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 — 환경문제와 인류의 생존,” WCED(1987), 조형준 · 홍성태 역(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1995 “미국 군수산업의 구조전환과 사회문제들,” 김진균 · 홍성태(1996), 『군신과 현대사회: 현대 군사화의 논리와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문화과학사
 황태연
 1992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
 환경교육회편찬위
 1992 『환경과학』, 동화기술
 환경파공해연구회
 1991 『공해문제와 공해대책』, 한길사
 Bailey, R.
 1993 *Eco-Scam: The False Prophets of Ecological Apocalypse*, St. Martin's Press
 Baudrillard, J.
 1970 이상률 옮김(1992),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Benton, T.
 1989 “Marxism and Natural Limits: An Ecological Critique and Reconstruction,” *NLR* 178
 1992 “Ecology, Social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A Reply to Reiner Grundmann,” *NLR* 194
 Caldwell, L.
 1970 *Environment: A Challenger for Modern Society*, N.Y.:The Natural History Press
 Carson

- 1962 이길상 역(1990). 『침묵의 봄』. 탐구당
Commoner
- 1971 송상용 역(1980). 『원은 닫혀야 한다』. 전파과학사
Crosby, A.
1988 "Ecological Imperialism: The Overseas Migration of Western Europeans as a Biological Phenomenon," Donald Worster ed. (1988), *The End of the Earth: Perspectives on Modern Environmental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 D'Antonio
1993 *Atomic Harvest: Hanford and the Lethal Toll of America's Nuclear Arsenal*, Crown Publishers, Inc.
- Davis, M.
1993 "Dead West: Ecocide in Marlboro Country," *NLR* 200
- Durning, A.
1992 구자건 옮김(1994). 『소비사회의 극복: 현대 소비사회와 지구환경 위기』. 뜬남
1994 "삼립경제의 새로운 개념," 김법철 · 이승환 옮김(1994). 『지구환경보고서 1994』. 뜬남
- Dzilo, Mary, et al.
1993 "Atlantic and Pacific coasts' Labor Markets hit hard in early 1990's," in *Monthly Labor Review*, February
- EPA
1992 *Integrated Environmental Plan for the Mexican-U.S. Border Area (First Stage, 1992-1994)*
1993 *The Guardian: EPA's Formative Years, 1970-1973*
1995 *BECC and the NADBANK - Financing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on the U.S.-Mexico Border*
- Galeano, E.
1974 박광순 역(1988). 『수탈된 대지: 라틴아메리카 5백년사』. 범우사
- Gore, A.
1992 이창주 옮김(1994). 『위기의 지구』. 삶과 꿈
- GPO
1995 *Budget of U.S. Government - Fiscal Year 1996*
- Gramsci, A.
이상훈 옮김(1986). 『옥중수고 I』. 거름
- Greenpeace Mexico
발행년도 미상 *Propuesta Alternativa de Transporte Publico y Vialidad para la Ciudad de Mexico.*
- Grundmann, R.
1991a 박만준 · 박준건 옮김, 1995.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동녘
1991b "The Ecological Challenge to Marxism," *NLR* 187
- Heivilin, Donna
1994 *Environmental Clean-Up: Too Many High Priority Sites Impede DOD's*

- Program, GAO/NSIAD-94-133.
- INEGI
 1995 *Estadísticas del Medio Ambiente 1994*
- Käkönen, J.
 1994 *Green Security or Militarized Environment*, Dartmouth
- Lewis, M.
 1992 *Green Delusions: An Environmentalist Critique of Radical Environmentalism*, Duke Univ. Press.
- Lipietz, A.
 1991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의 제문제와 조절이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1991). 『전환기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
- Myers, N.
 1993 *Ultimate Security: the Environmental Basis of Political Stability*, W.W. Norton & Company
- NACEC
 1995 *1995 Annual Program and Budget*
- Renner, Michael
 1991 “환경에 대한 군대의 전쟁행위.” Worldwatch Institute, 김범철 · 이승환 옮김(1991). 『지구환경보고서 1991』. 뜬님.
- Rezendes, Victor
 1993 *Nuclear Weapons: Safety, Technical, and Manpower Issues Slow DOE's Disassembly Efforts*, GAO/RCED-94-9.
- Romm, J.
 1993 *Defining National Security: The Nonmilitary Aspect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 Secretaría de Desarrollo social Instituto Nacional de Ecología
 1994 *Méjico: Informe de la Situación General en Materia de Equilibrio Ecológico y Protección al Ambiente 1993-1994*
- Sheram, K.
 1993 *The Environmental Data Book: A Guide to Statistics o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The World Bank
- Shulman, S.
 1992 *The Treat at Home: Confronting the Toxic Legacy of the U.S. Military*, Beacon Press
- Smart, B. ed.
 1992 *Beyond Compliance: A New Industry View of the Environment*, World Resources Institute
- Washington Quarterly
 1980 매일경제신문사 역(1985). 『미국경제지도』. 매일경제신문사
- WCED
 1987 조형준 · 홍성태 역(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 World Bank
 1992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Development and Environment*

Yandle, B.

1993 "Is Free Trade an Enemy of Environmental Quality?", Terry Anderson ed. (1993), *NAFTA and the Environment*, Pacific Research Institute for Public Policy

吉田文和

1990 『ハイテク汚染』, 岩波書店

藤岡惇

1992 "冷戦經濟 解體の道 - アメリカにおける「軍民轉換」は可能か," 新日本評論社, 『經濟 8』 no.340.

米本昌平

1994 박혜숙·박종관 옮김(1995), 『지구환경문제란 무엇인가』, 띠님
天笠啓祐·강현·김원식 편역

1990 『지구를 파괴하는 범죄자들』, 푸른산
『조선일보』

1994/4/22, 1995/12/30, 1996/1/26
『한겨레신문』

1990/8/23, 1995/7/10
미국과 멕시코 현지 면접자료